

탐라영재관 새출발... 청년 플랫폼 가동

제주도는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탐라영재관에서 '2026년 탐라영재관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제주 출신 대학생 228명의 출발을 격려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와 입학생 등 2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입주 초기 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도의 제주 청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명기 부지사와 '제주도에 바란다, 푹!푹!' 시간이 마련됐다. 학생들은 제주청년보장제, 청년 플랫폼 등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질문과 청년 홍보대사



(엠베서더) 운영 제안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경제통상진흥원, 제주 기업 판로 확대 협약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고병기)은 지난 5일 (주)엠에이치앤코(대표 주중의)와 제주기업 제품의 유통채널 확대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던하우스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기반으로 제주지역 유력 상품을 발굴하고, 상품기획, 디자인 개선, 품질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공동마케팅을 통한 판매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병기 원장은 "제주와 대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협력한다면 제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상품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제주의료원 '마음나눔' 현장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의료원은 지난 5일 제주의료원 회의실에서 '마음나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양재운 안전건강실장 등 도청 관계자들과 제주의료원 임직원들이 모여 의료인력 운영, 진료환경 개선, 공공의료 역할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제주의료원은 제주도에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 의료시설 확충, 의료진 기숙사 증축, 공직자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0회 서흥동 정월대보름 축제 성료

서귀포시 서흥동마을회(회장 강성극)는 지난 7일 서흥동 소공원 일원에서 마을의 무사 안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제20회 서흥동 정월대보름 축제'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원문 달기, 민속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까지 500여 명이 풍성한 축제를 즐겼다. 특히 달집태우기엔 행사장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의 소원을 달집에 태워 보내며 서로의 앞날의 풍요와 행복을 기원했다. 강성극 마을회장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마을의 전통과 가치를 이어가며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금희 유니엔티 대표 정기후원 성금

(주)유니엔티 김금희 대표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를 방문해 정기후원 성금 18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김금희 대표는 "기업이 도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자 정기후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귀포자치경찰단 1100고지 환경 정비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대장 송행철)는 지난 5일 주민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1100고지 휴게소 일원에서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라바콘 등 안전 시설물이 기온 변화로 파손돼 도로에 방치됨에 따라 도로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이뤄졌다.



삼양동자율방재단 안전문화의 날 캠페인

제주시 삼양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강일지)은 지난 5일 안전문화의 날을 맞아 삼양동 일대에서 '어린이 유괴 방지 및 안전한 등교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방재단 단원 20여 명은 어린이 등굣길 주요 지점에서 유괴 예방 행동요령 안내, 등교시간 교통지도, 낯선 사람 경계법 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남원읍 위미1리 마을 임원과 간담회 개최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고권우)은 지난 4일 위미1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및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봄철 안전관리와 환경정비 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고권우 읍장은 "행정과 마을이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림읍연합청년회 축하 쌀 화환 기탁

제주시 한림읍연합청년회는 최근 '제25·26대 한림읍연합청년회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받은 쌀 900kg을 한림읍(읍장 고석건)에 전달했다. 기탁된 쌀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 제주시 정책자문위 복지위원에 성금

행복제주 전 제주시 정책자문위원회(회장 김만식)는 최근 농촌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성이시골 복지위원(위원장 홍종숙(이자별) 수녀)을 방문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새마을지도자안덕면부녀회 알뜰장터 개최

새마을지도자안덕면부녀회(회장 신선순)는 지난 5일 서귀포시 안덕생활체육관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알뜰장터 행사를 개최했다. 부녀회는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리 아동 보육원 지원 성금 기탁

김태리 아동은 지난 3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연)를 방문해 도내 보육원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태리 아동은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세계 병원 평가 '제주 1위' 국내 종합병원 중 55위...5계단 상승

제주대학교병원이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발표한 '2026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6)' 평가 순위 '에서 제주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8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뉴스위크는 전세계 30개국 253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품질 지표(40%) ▷업계 설문조사(병원 소재 국가 30%+해외 5%) ▷환자 만족도(18.5%) ▷환자 건강 상태 자가 평가

(PROM) 시행 여부(6.5%)을 평가, 순위를 공개했다. 제주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종합병원 중 55위로 지난해 60위보다 5순위 상승했으며, 평가가 시작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지역 병원 1위를 지키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와 중증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제6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당일환상센터 개소 ▷뇌혈관 하이브리드 수술실 신설 ▷권역 모자료센터 기능 강화 ▷신생아·태아 중환자실 확충 ▷이식 진료 체계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대, 국제 여성 디자인전 첫 참가

제주대학교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여성 디자이너가 모이는 국제 디자인 전시회 작품을 선보인다. 8일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에서 열리는 국제 디자인 전시 'WIND' (Women in Industrial Design)에 제주대 디자인학부 3팀의 작품이 출품된다. WIND 전시에는 스페인 내 대학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칠레 등의 대학이 참여하는데,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산업체 여성 디자이너의 작품과 각 대학교 여학생이 진행한 디자인 프로젝트가 전시된다.

올해 전시에는 모두 1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아시아 대학은 제주대가 유일하다. 제주대 디자인학부는 "그동안 유럽과 미주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프로그램에 아시아 대학으로는 제주대가 처음 참여하는 사례"라며 "국제 디자인 교류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제주대 학생들이 선보이는 작품은 모두 3점이다. 임민선, 변선주, 박민서 학생이 참여했다. 전시 작품 지도를 맡은 제주대 오철훈(디자인학부장) 교수는 "앞으로도 해외 대학, 산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디자인 교육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락두절된 노모... 경찰 덕에 무사 출국

공항경찰이 연락이 두절된 70대 노모를 수색 끝에 무사히 발견해 출국을 도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푸둥으로 출국하기 위해 제주로 향한 70대 모친 A씨가 4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50대 아들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모친의 여권 사진 한 장을 전달 받고 수색 20분 만에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보호구역에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 중국 푸둥으로 출국을 도왔다. A씨는 한국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놓고 있어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B씨는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은행, AI 전환 프로젝트 추진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은 지방은행 최초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AI 전환(AI)'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은행은 KT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업무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방은행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직원들이 업무용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은행은 상반기 중 구축을 완료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